

# 광주학생운동, 5·18...관객과 고민하고 소통하다

## '어린이 문화제 그리기 잔치' 광주박물관, 10월 12일까지

### 극단 얼·아리 연극 '어쩌면' 시즌 3 '희상 5월' '광주의 선비정신' 등 광주공유센터서 6개 작품 선보여

연극을 관람하기 위해 모인 관객들은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과 대화하며 연극에 참여한다. 이 곳에서 저 곳으로 옮겨지는 무대를 따라 이동하며 연극을 체험한다. 연극이 끝나고 난 후에는 모여서 작품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극단 얼·아리(대표 양태훈)가 선보이고 있는 연극 '어쩌면' 시리즈는 새로운 형태의 연극으로 특색 있는 무대를 선보이고자 기획된 관객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첫 시작인 '어쩌면 스무 개의 이야기'는 광주시 남구 양립동에 있는 아리네게스트하우스에서 진행됐으며, 관객들은 게스트하우스 안에 있는 방 7개를 무대로 삼은 연극을 체험했고, 공연이 끝나고 난 후에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마무리했다. 총 5회 공연동안 20개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졌고 이 20개의 이야기들은 또 다른 연극 작품으로 제작돼 지난해 선보인 시즌 2 '어쩌면 뷰티플라

이프' 무대에 올랐다. '어쩌면 뷰티플 라이프' 역시 관객이 살림문화재단 내부를 이동하며 연극을 관람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광주'를 주제로 한 '어쩌면' 시즌 3 '공유 광주, 함께 아카이브하다!'가 지난 8월부터 광주공유센터(광주시 남구 진월동)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오는 26일과 10월3일 두 차례 남은 이번 공연은 광주학생독립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과거 광주의 사건들 그리고 현재의 이야기를 통해 광주의 미래를 관객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자 기획됐다.

올해 선보이는 작품은 '희상 5월', '스토리텔링 당신의 꿈', '광주의 선비정신', '어머니의 재봉틀' 등 6개다.

'희상 5월'은 1인극으로 80년 5월 현장에 있던 시민군과 현재를 살아가는 광주시민의 만남을 다룬 작품이다. '스토리텔링 당신의 꿈'은 가수가 꿈꾸며 광주를 떠났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고 광주로 돌아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여인의 삶을 다룬 연극으로,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광주의 선비정신'은 화재 박물관, 고봉 기대승, 제봉 고경명 등 광주를 빛낸 역사 속 인물들의 재미있고 경이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1인 다역극이며, '어머니의 재봉틀'은 재봉틀을 돌리며 자식들을 키워낸 어머니의 삶을 바탕으로 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한다.

이밖에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2021년 현대를 풍자하는 연극인 '1929 ; 2021'과 기자와 원조 옥쟁이 할머니가 함께 광주에 대해 알아보는 관객 참여 퀴즈쇼로 꾸며지는 '퀴즈쇼 광주'도 만날 수 있다.

연극은 몰품공유방, 재봉공유방, 문화예술공유방 등 광주공유센터 내 6개 공간을 무대로 펼쳐지며, 공연이 끝나고 난 후에는 공연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등을 SNS를 통해 나누는 '스토리텔링 퍼포먼스'가 마련된다. 원래는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개인 SNS를 이용하기로 했다. '스토리텔링 퍼포먼스'를 통해 나온 이야기들은 내년에 선보일 '어쩌면' 시즌 4의 작품으로 관객과 만난다.

극단 얼·아리 양태훈 대표가 연출로 참여하며, 무대에는 노희설·정경아·양정인·김경숙·이서비·김호준·박영배·이슬·송민중·신은수·김지은 등이 오른다.

한편 지난 1993년 창단한 극단 얼·아리는 '오천원짜리 연극', '매 품입니다', '그래도 따듯했던',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다' 등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과 만나왔으며, '발톱을 깎아도'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전예약제를 통해 20명의 관객만 초대한다. 문의 010-2659-699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오는 10월 12일까지 '제33회 어린이 문화제 그리기 잔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문화유산에 흥미를 갖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1988년 시작해 올해로 33회를 맞이한 '어린이 문화제 그리기 잔치'는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으로 운영된다.

참가대상은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생 500명으로 제한하며 희망자는 광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온라인 참가신청 후, 등기우편 또는 현장접수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향후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 후 10월 28일 광주박물관 누리집에 발표한다. 시상은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국립중앙박물관장상, 광주광역시장상, 전라남도지사상, 광주교육대학교총장상, 전라남도교육감상, 광주광역시교육감상) 등에 부상이 수여된다.

아울러 수상작은 오는 11월 2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광주박물관 전시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박물관 내에서 사생을 원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온라인 참가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박물관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929 ; 2021  
광주학생독립운동과 2021년의 현대에 대해 풍자하는 재미있는 연극



희상 5월  
80년 5월 시민군과 지금 현재 광주시민의 만남

극단 얼·아리는 오는 26일과 10월3일 광주공유센터에서 '공유광주, 함께 아카이브하다!' 공연을 선보인다. 사진은 연극 '1929 ; 2021'(왼쪽)과 '희상 5월' 모습.

## ACC 전문인력아카데미 프로젝트형 교육 수강생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ACC 전문인력아카데미 프로젝트형 교육 수강생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프로젝트형 전문가 과정은 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최원일)과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이 운영하며 오는 30일부터 5가지 프로젝트형 교육과정을 비대면, 대면 혼합방식으로 진행한다.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콘텐츠 제작과 실행에 참여한다.

먼저 '1인 낭독극 기획-실행'에선 '보따리 하나에 들어갈 만큼의 이야기'를 주제로 참여자가 이야기를 창작한 뒤 연기와 낭독을 배우며 1인극을 만들어 간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공간기획'은 전시공간에 미디어아트 작품을 설치, 문화예술 현장과 환경에 적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포스트휴먼 상상' 전시-현장교육은 ACC 전시기획팀의 '포스트휴먼 상상' 전시와 연계해 전시기획자와 디자이너, 작가 등을 통해 알아본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시구상'은 가상공간 등을 기반으로 한 전시 기획과 구성, 실행 등을 함께 고민해보는 과정이며 마지막으로 '사운드-공간구현 기획과 실행'은 음향 콘텐츠 현장에서 사용하는 '프로 톨스' 소프트웨어로 공간에 음향을 구현해 본다.

프로젝트별 교육생은 최대 10명이며 총 50여 명이 참여 가능하다. 교육비는 무료.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가을 초입에 만나는 비발디와 피아졸라의 '사계'

### 광주시향 GSO 오티움 콘서트 VI 10월 1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광주시향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 GSO 오티움 콘서트 VI '비발디와 피아졸라의 사계 가을·겨울'이 10월 14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1일 2회)에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클럽 발코니 편집장이자 음악칼럼니스트 이지영의 해설과 강력한 테크닉과 표현력을 가진 바이올리니스트 양정운(사진)의 협연, 광주시향 부지휘자 김영연의 지휘로 꾸며진다.

공연은 브람스 '교향곡 3번 3악장'으로 문을 연다. 브람스의 처연한 음색과 남성적인 울림이 가을과 잘 어울리는 곡으로 프랑수아즈 사강의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원작으로 한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어 클래식 역사상 가장 많이 연주되고 사랑받는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와 탱고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린 피아졸라가 표현한 각기 다른 사계 중 '가을'과 '겨울'을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다. 바로크음악과 남미의 탱고음악을 자유롭게 오가며, 이탈리아와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등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유럽을 무대로 활동 중이다.

아르헨티나 각 계절의 섬세함과 환희, 감동을 고스란히 전한다.

마지막으로 차이콥스키의 첫 교향곡인 '겨울날의 환상'을 만난다. '겨울 여행의 몽상'이라는 부제가 붙은 1악장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비로운 러시아풍의 선율이 울려 퍼진다.

이날 협연자로 함께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정운은 폴란드도른(현 카를 리핀스키) 국제 콩쿠르, 2017년 이탈리아 리피체르다.

티켓은 전석 1만원(관람 8세 이상)이며,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 문의 062-524-508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지역 문화담론지 '창' 가을호 나와

문화도시 광주는 과연 문화예술인이 살 만한 도시일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하 재단)이 발행하는 문화담론지 '창'은 가을호(통권 54호) 특집에서 '문화도시 광주가 정말 문화예술인이 살기 좋은 도시인가'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와 예술가의 의견을 담았다.

조인형 광주경제교육센터장이 '지역 문화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프레임 변화'를 이야기한다. 장도국 배우와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각각 '예술인의 권리 보장,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노동실태와 대안'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은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현황과 제언'을 개진한다.

오형근 재단 후원회장의 '플랫폼경제 단상'을 주제로 창을 연 이번 호는 '문화재단'에서 고선주 광일보 문화부장이 '뉴노멀 시대에 발맞춰 관광 거점으로 뿌리내려야'를, 임인자 소년서 대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5·18관련 검열 행위가 묻는다'를 주제로 다룬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